

또 인재 '후진국형 참사'… 관리자 부재, 작업자는 현장대피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버스와 함께 17명 매몰, 9명 숨져
인도만 통제, 허술한 가림막 문제
붕괴 조짐에 작업자·신호수 대피

최고책임자 정몽규 HCD현산 회장
"진심으로 사죄… 사고 수습에 최선"



후진국형 참사에 애꿎은 시민만 목숨을 잃었다.

철거 현장에 있어야 할 감독자인 관리자도 없었고 작업자와 신호수는 붕괴 신호가 감지되자 자리를 피한 정황도 나왔다.

광주 동구 한 공동주택 재개발구역 철거현장에서 무너진 건물이 도로와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9일 오후 4시 22분께,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근린생활시설 철거현장에서 지상 5층 규모 건물이 무너졌다. 시내버스를 뒤따르던 승용차들은 차를 멈춰 가까스로 피해를 피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 버스와 함께 매몰된 탑승자 17명 중 9명(여성 7명·남성 2명, 10대~70대, 대부분 뒷좌석)이 숨졌고, 8명은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발견된 54번 버스는 상부가 짓이겨진 모습이었다.

이번 참사는 허술한 철거 공사와 안

전불감증 속에서 일어났다는 지적이온다.

해당 건물 철거 공사는 굴삭기가 위에서 아래로 허무는 방식(답다운 공정)으로 이뤄졌다. 철거 대상 건물 뒤편에 폐자재 등을 쌓아 올렸고, 폐자재 더미에 굴삭기가 올라앉아 남은 구조물을 부쉈다. 이 경우 수평 하중이 앞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 구조 안전 분석이 선행됐어야 한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철거 현장 바로 옆은 사람과 차량이 다니는 인도·차도였다. 전조 현상(특이 소음 발생)이 있었는데도 인도만 통행을 통제하고 차량 통행을 막거나 최소화하지 않은 점, 허술한 가림막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고수습대책본부장인 임택 동구청장은 10일 '붕괴 당시 현장에 감리자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감리자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같은 취지로 '감리 부재'를 재확인했다.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한 주택 철거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져 정차중인 시내버스를 덮쳤다. 사진은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을 정도로 죄송한 마음 뿐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최고 책임자인 정몽규 HDC현대산 업개발 회장도 10일 오전 광주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공개 사과와 함께 고개를 숙였다.

정 회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회사는 이번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의 피해 회복,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광주 붕괴사고 관련 "희생자를 지원하고 철저하게 책임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사고 현장 상황을 확인한 후 유족과 부상자들을 만나 위로를 전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9일 오후 11시 30분에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0일 새벽 페이스 북에 글을 올려 "사고현장에서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단 한분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너무나 소중한 시민 아홉 분을 잃었고, 또 다른 여덟 분은 병상에서 크나큰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라며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국토부 경찰청 등과 함께 철저하게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하청 등의 제도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박태홍·김태수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경찰은 철거업체 관계자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기존에 철거했던 잔해를 쌓아둔 곳에 굴삭기가 올라타 5층 정도 높이에서 허무는 방식으로 철거가 이뤄진 점, 철거 현장 바로 옆이 인도·차도인 점 등으로 미뤄 정교한 안전 조치를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붕괴 조짐이 일자 작업자와 신호수들이 현장을 대피했던 것으로 보고 시공사와 철거업체를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와 업무상 과실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인다.

경찰은 10일 오후 1시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동 현장 감식에 나섰다.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학동 633-3번지 일대 12만

6433㎡에 지하 3층, 지상 29층, 19개 동, 2314세대 규모로 추진 중이다. 시공사는 (주)현대산업개발로 지난 2018년 2월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4630억 9916만 원에 사업을 수주했다. 조합원수는 648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현재 기존 건축물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며 철거 공정률은 90%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권순호 대표가 10일 새벽 현장을 찾아 유족과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권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구역을 찾아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고가 발생해 아직도 마음이 떨리고 있다"며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 부상자들에게 말하기 어려



여수 뱃길 따라 희망 싣고 섬 복지 지원사업.

여수 '섬 복지사업' 주민 호응

'뱃길 따라 희망 싣고' 지원사업 추진
635개 기관 연계 7124명에 서비스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지난 2월부터 추진 중인 '뱃길 따라 희망 싣고' 섬 복지 지원사업이 16개 도서 2천여 명의 도서 주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펼쳐놓은 호응을 얻고 있다.

2007년부터 추진하다 2015년 중단된 섬 복지 지원사업은 민선 7기 2019년 재점화되어 지리적으로 소외된 섬 주민을 위한 통합 사회복지 연계 서비스를 펼쳐왔다.

지금까지 635개 민간기관과 연계해 20개 소규모 도서 7124명에게 주거환경 개선, 양·한방치료, 이·미용, 문화공연, 주민 참여프로그램, 밀반찬, 특식 지원, 방역, 사례관리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런 공로로 지난 2019년 11월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최우수상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 우수사례 선정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최근 코로나19로 집에만 훌로 계시는 도서지역 노인들의 고립감이 악화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서비스 대상자에게 IOT(사물인터넷센서) 설치 및 관리, 개별 식품 구매 보내기, 사례관리 대상자 전화하기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올해 말까지 18개 섬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섬 주민들에게 꼭 필요 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화정면 개도 여섯 마을 한 어르신은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가야 병원도 가고 간식도 사 먹는데, 이렇게 찾아와 직접 치킨도 만들어 주고 방충망도 수리해 주니 정말 고마울 따름이다"고 말했다.

/여수(전남) 김용학 기자 jjacecom@

나주시, 장류·발효음식 계승 인력 키운다

총 22회 과정 대면·비대면 교육

나주시가 장류·발효음식 분야 전통식문화를 계승할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선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향토음식체험문화관에서 대면, 비대면을 병행한 22회 과정(총 55시간)의 '전통 장류 및 발효 음식' 교육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천수봉 전라남도 음식명인을 강사로 초빙해 전통장류·장아찌 등 전통식문화에 대한 이론 수업과 더불어 대대로 전해져오는 된장, 간장, 즙장, 청국장 제조 실습 과정이 진행된다.

여기에 장류와 뛸 수 없는 대표 저장

음식인 장아찌(보리굴비·머위대·취·백 오이·참외)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전통 조리하는 시간도 갖는다.

교육생 김 모 씨는 "매번장을 담가 주셨던 어머니의 정성스런 마음을 이어받아 이제는 내가 직접 만든장을 자녀에게 주고 싶다"며 수강 신청 계기를 밝혔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전통 방식 그대로의 실습을 통해 전통식문화의 가치를 정립하고 옛 맛을 계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양성되길 기대한다"며 "점차 잊혀져가는 향토 음식에 대한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해 다양한 식문화 교육을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전남) 김태수 기자 ts7080@

영양군의회

18일까지 정례회 돌입 조례안 등 안건 8건 처리

영양군의회는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68회 영양군의회 정례회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6월 10일부터 18일 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며, 2021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각종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군정 주요 업무보고는 10일부터 각 부서별로 3일간 진행되며,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군정 방향과 업무 전반에 대해 파악하고 각종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15일부터 3일간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가 있으며, 18일에는 각종 안건에 대한 의결이 예정되어 있다.

장영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개원 3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정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지역 경제는 물론 군민의 삶까지 위협받고 있지만 위기는 곧 새로운 시대를 대비할 기회로 다가올 것이라 굳게 믿으며, 군의회는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군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영양(경북) 김태우 기자 ktu3987@

곡성군, 농산품 온라인마케팅 전문가 양성

전남 곡성군이 농산품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를 양성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과정은 전남과학대학교와의 협업으로 운영 중인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허브센터를 통해 운영된다. 센터 층은 6월 23일부터 9월 8일까지 12차례에 걸쳐 매주 수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강생들은 인터넷 스토어 운영법, 사진 촬영 및 편집, 홍보용 이미지 제작법 등을 배울 수 있다.

센터는 현재 농산물을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는 지역농민 또는 주민, 곡성군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기타 실전 마케팅이 필요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6월 1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되는데 방문 신청은 곡성군 옥과면 대학로 113에 있는 전남과학대학교 학교기업 바이오플라워텍(본관 4층)에서 가능하다. /곡성(전남) 김태수 기자 ts7080@